

文대통령 “새해 3% 경제성장 기대”

“우리나라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 이뤄… 지속 고도성장은 어려워… 잠재 성장률 높이는 것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가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 새해에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른 새 표준’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정부 대책있어… 사회보험 비강 노동자 지원할 것’

문 대통령은 “올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 “과거 여러번 있던 일이다. 외국 경우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러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함이 증가되는 인구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또 고용보함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 “이제 과제가 그 분들도, 우리도 걱정하는 바다. 그 점에 대해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처리 시스템, 대전도안 행복주택 시범적용

악취를 없애고 편리함을 더한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대전도안 행복주택에 시범적용된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대전도안 행복주택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에서 입주민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한 이 시스템에서는 이같은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주거환경도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들은 1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각 세대 싱크대에 설치된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뒤 배관으로 버

리면 된다. 배출된 쓰레기는 지하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뒤 고액분리기에 고형물과 액상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액상은 기존 우수관과 연결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고형물은 발효와 소멸장치로 옮겨진 뒤 24시간 동안 발효되는데, 이를 거치면 무게가 90%이상 줄며 퇴비로 바뀐다.

LH는 이번 시범단지 모니터링을 거쳐 시스템을 개선한 뒤 앞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최종 부산물인 퇴비를 이용하면 단지 내 조경이나 텃밭 가꾸기 등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주민 간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에 제동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재고 떠남기기 등 ‘반품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와 관련, 법적 요건과 반품 허용 사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와 관련해 위반여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이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해 반품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즉시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한다.

특히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한다.

제정안은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관련, 판단기준도 상세히

담았다. 반품행위 금지 기준은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 행위 등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가 인정된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상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준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 직매입거래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법적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다”며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뉴스

고용노동부 전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협업 당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정영상 지청장)은 최근 전주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근로복지공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18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정착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상 지청장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취지, 주요내용 및 협력방안을 설명하였고, 각 업종별 협회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안정자금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전주시도 참석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단체장 등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공동 홍보방안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영상 지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안정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 및 협회도 정부와 함께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못하는 사업장은 일대일 컨설팅 실시하며, 직접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소

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함을 안내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군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자선형성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이 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6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청년취직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자다. /군산=김판관 기자

“이유식, 생후 9개월 가장 많아”

베베쿡 ‘당일 제조·당일 배송으로 운영’



생후 만 9개월 아기를 둔 엄마들의 이유식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배달 브랜드인 베베쿡은 지난해 판매된 이유식을 살펴본 결과 생후 만 9~10개월 아기를 위한 베베쿡 ‘후기’ 단계 이유식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은 생후 만 7~8개월 아기를 위한 ‘중기’ 단계와 ‘생후 9개월 가장 많아’

베베쿡 관계자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기들에게 월령별로 설계한 맞춤형 이유식을 먹일 필요가 있다”며 “당일제조, 당일배송으로 운영되는 베베쿡은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으로 영양과 위생을 고려한 이유식을 제공하는데 항상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